



대학스포츠

2011. 6. 20. | 제1호

한국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

비전 및 연혁, 조직도 / 회원 대학 / 대학경기리그

협의회 주요 활동

창립총회 및 현안 보고회 / 대학스포츠 재정 확충을 위한 세미나

대학 경기 지도자 워크숍 개최 / 대학농구리그 마케팅 사업 대행 계약

회원대학 총장 동정

해외대학과 교류 협정 활발 외



한국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
Korea University Sport Federation



- 04 인사말
- 05 비전
- 06 연혁
- 07 조직도
- 08 회원대학
- 09 대학축구리그
- 10 대학농구리그
- 11 대학배구리그
- 12 협의회 주요 활동
- 19 집행위원회 주요 활동
- 20 하반기 주요 계획
- 21 회원대학 총장 동정





Korea University Sport Federation

정신적, 육체적, 사회적인 가치가 잘 조화된
젊은 스포츠 인재의 열정이 뜨겁게 타올라 미래를 밝힙니다.

한국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는 공부와 운동을 병행하는
학생선수의 양성을 통한 선진국형 대학스포츠 시스템 구축과
글로벌 스포츠 인재 육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국 대학스포츠의 성공적인 발전을 꿈꾼다 Korea University Sport Federation

한국 대학스포츠가 변화의 중심에 섰습니다.

한국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는 글로벌 스포츠 인재 육성, 선진국형 대학스포츠 시스템 구축, 스포츠 건전 문화의 창조, 학생선수들의 건전한 리더십 함양을 통해 대학스포츠의 본질 회복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대학스포츠의 성공적인 발전을 위한 한국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의 노력은 한국 스포츠의 미래를 밝혀줄 희망찬 도약이 될 것입니다.





대학스포츠의 정상화와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는 2010년 6월, 대학스포츠에 많은 관심을 가지신 여러 총장님들과 함께 대학스포츠 협의체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대학스포츠의 정상화와 활성화를 위하여 출범하였습니다.

그동안 우리 대학스포츠는 외형적 성과 면에서 한국 스포츠의 성장을 이루는 데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대학스포츠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함께 논의하고 풀어야 할 과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직도 학생선수들이 우수한 경기성적만을 염두에 두고 학업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고, 학교 운동부의 재정도 그리 넉넉하지 않습니다. 프로스포츠와의 긍정적 차별화도 우리의 몫입니다.

대학스포츠는 우수한 엘리트 스포츠 자원을 공급할 수 있는 터전임과 동시에 정정당당한 경쟁과 협동이라는 스포츠맨십을 체득하고 발휘해야만 하는 중요한 영역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학생선수들이 학업과 운동을 병행하여 지덕체를 고루 갖춘 전인적 스포츠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스포츠 시스템을 조성하고 가꾸어 나가야 합니다. 대학스포츠의 정상화는 초·중·고등학교 학생선수들에게 직·간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매우 커서 더욱 더 큰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현재 전국 대학 가운데 절반에 이르는 대학에서 대학운동부를 운영하고 있으나 대학스포츠의 현안과 공통 관심사를 논의하고 협의하는 구심체가 없어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앞으로 이 협의회가 이를 하나하나 풀어나가기 위한 제도 개선과 사업을 추진하고, 더 나아가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대학스포츠의 성공적 발전을 위해서 대학 스스로 건전한 대학스포츠에 대한 인식을 갖고 이 협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나간다면 대학스포츠의 정상화는 물론이고 우리나라의 스포츠 패러다임이 선진국형으로 탈바꿈되리라고 기대합니다.

여러분의 앞날에 변함없이 향기로운 희망 노래가 울려 퍼지기를 소망합니다.

한국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장
연 세 대 학 교 총 장 **김 한 중**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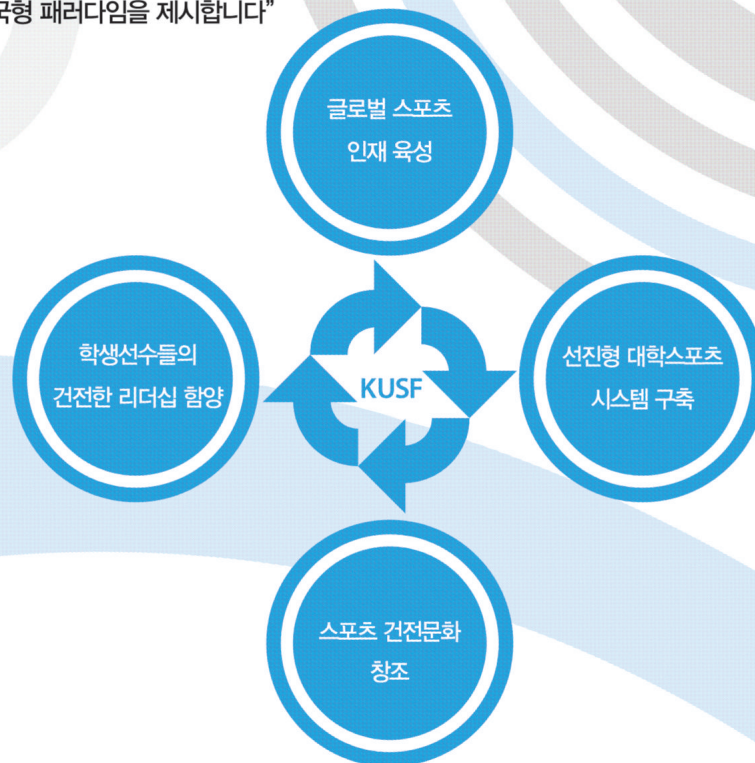
비전

설립목적

한국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는 대학스포츠의 건전한 육성과 발전을 도모하고, 대학 스포츠의 본질을 회복하여 스포츠의 선진화를 이룬다. 그리고 대학스포츠에 관한 학사, 재정, 시설 등 주요 관심사에 대한 자율적인 협의 및 연구, 조정을 통한 상호 협력과 학생선수들이 스포츠 활동과 교육을 통해 정신적, 육체적, 사회적으로 건전한 리더십을 갖추도록 한다. 더 나아가 스포츠 발전에 필요한 정책을 정부에 건의하여 우수한 경기자의 양성과 국민 통합 및 국가 이미지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비전

“한국 대학스포츠의 선진국형 패러다임을 제시합니다”



추진목표

- 대학스포츠 활성화로 건강하고 활기찬 대학 이미지 형성
- 한국 스포츠를 지탱하는 구심축 역할과 선도적 수행
- 전인적 스포츠 지도자 육성과 글로벌 스포츠 인재 육성



학생선수 관리

- 학생선수들의 학업 관리 및 학사 운영의 연구 지원을 통한 학습권 보장
- 대학스포츠 제도의 연구 협의 조정
- 학생선수들의 건전한 리더십 함양 지원

대학경기 운영

- 대학스포츠의 경기력 향상을 위한 지원
- 학생선수들의 스포츠맨십과 아마추어리즘 고양
- 대학스포츠 규정 집행 및 감독

인프라 · 마케팅

- 대학스포츠 인프라 확충
- 노후한 경기시설과 편의시설 개선
- 수익창출을 위한 대학스포츠 마케팅 및 수익모델 개발



협의회 현황

문화체육관광부 허가 : 2010. 07. 16 (2010-41호)

허가법인등기 : 2010. 07. 26 (등기번호 002862/등록번호 270121-0028620)

사업자등록 : 2011. 04. 21 (등록번호 105-82-18534)

협의회 연혁

2009.11.04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농구팀 운영 11개 대학총장 간담회
2010.01.15	한국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 설립방안 연구팀 구성
2010.02.04	운동부보유 주요대학총장·체육위원장 간담회
2010.03.06	제1차 창립 발기 준비 소위원회의
2010.03.25	제2차 창립 발기 준비 소위원회의
2010.04.06	창립 준비 소위원회-세미나 준비팀 연석회의
2010.04.20	한국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 창립 발기 준비위원회의
2010.05.06	한국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 창립 발기회 및 세미나
2010.05.18	제1차 한국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 창립총회 준비회의
2010.05.25	제2차 한국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 창립총회 준비회의
2010.06.08	한국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 창립총회
2010.08.25	2010년 제1차 집행위원회의
2010.09.16	2010년 제2차 집행위원회의
2010.10.18	2010년 제3차 집행위원회의
2010.10.27	한국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 임원단 상견례 및 보고회
2010.11.19	2010년 제4차 집행위원회의
2010.11.22	대학스포츠 재정확충을 위한 세미나
2010.12.01	대학 경기 지도자 워크숍
2010.12.27	대학경기리그 유관기관 워크숍
2011.02.14	2011년 제1차 집행위원회의
2011.03.24	대학경기 주최·주관 합의서 체결, 대학농구리그 타이틀 스폰서 계약 체결
2011.03.25	대학농구리그 주관 방송 약정체결
2011.04.11	KUSF 상표 등록 출원
2011.04.18	2011년 제2차 집행위원회의
2011.04.22	대학리그 참여 학생선수 성적 진단 분석
2011.05.02	한국 대학스포츠 산업의 재정 수입원 모델 개발 연구용역 공모
2011.05.31	2011년 제3차 집행위원회의

조직도

7 조직도





회원대학

대학교	총장	축구	농구	배구
건국대학교	김진규	○	○	
건동대학교	방 열	○		
경기대학교	최호준	○		○
경운대학교	김향자	○		
경희대학교	조인원	○	○	○
고려대학교	김병철	○	○	
관동대학교	박희종	○		
광운대학교	김기영	○		
광주대학교	김혁중	○		
군장대학	이승우	○		
단국대학교	장호성	○	○	
대구대학교	홍덕률	○		
동강대학	류재민	○		
동국대학교	김희옥	○	○	
동아대학교	조규향	○		
동의대학교	정량부	○		
명지대학교	유병진	○	○	○
배재대학교	김영호	○		
상명대학교	이현청		○	
서남대학교	김응식	○		
서라벌대학	김재홍	○		
선문대학교	김봉태	○		
성균관대학교	김준영	○	○	○
아주대학교	안재환	○		
연세대학교	김한중	○	○	
영남대학교	이효수	○		

대학교	총장	축구	농구	배구
영동대학교	송재성	○		
용인대학교	김정행	○		
우석대학교	강철규	○		
울산대학교	이 철	○		
원광대학교	정세현	○		
인제대학교	이원로	○		
인하대학교	이본수			○
전남과학대학	조성수	○		
전주대학교	이남식	○		
조선대학교	전호중	○	○	○
중앙대학교	안국신	○	○	
청주대학교	김윤배	○		
초당대학교	김병식	○		
충남대학교	송용호		○	○
충북대학교	김승택	○		
탐라대학교	조철옥	○		
한국체육대학교	김종욱			
한남대학교	김형태	○		
한라대학교	이정무	○		
한려대학교	서복영	○		
한양대학교	임덕호	○	○	○
호남대학교	서강석	○		
호서대학교	강일구	○		
호원대학교	강희성	○		
홍익대학교	장영태	○		○

2011 U리그



“Enjoy football in Campus”



지난 4월 1일 개막한 2011 U리그는 젊음의 열기로 가득찬 대학 캠퍼스를 더욱 뜨겁게 달구며 열전을 펼치고 있다.

7개 권역으로 나누어 열리는 예선 리그서 중앙대(6승2무2패), 고려대(10승1무), 홍익대(6승2무3패), 한남대(9승 2무), 동아대(7승4무), 우석대(7승4무), 호남대(8승3무)가 6월 15일 현재 각각 조 선두를 질주하고 있다.

또 한남대 박정민은 11경기서 15골을 폭발시켜 소속팀을 강력한 우승후보 반열에 올려놓았고 아주대 황철환과 더불어 대학축구의 골잡이로 명성을 떨치고 있다.

이번 대회 각 권역별 4위 팀까지는 32개팀이 참가하는 'U리그 대학선수권대회 챔피언십'에 직행하며, 각 조 5위와 6위 팀이 토너먼트로 플레이오프를 치러 4팀이 추가로 챔피언십에 출전한다. 챔피언십은 작년과 동일하게 토너먼트로 진행되며, 결승전 역시 단판승부로 펼쳐진다. 32개 팀에 들지 못한 나머지 팀들을 위한 대회도 신설되었다. 이들은 'U리그 대학선수권대회 프랜차이즈'에 참가해 따로 우승팀을 가릴 예정이다. 역시 토너먼트이며, 결승전 역시 단판승부.

한편 U리그는 2008년 수도권 10개 대학이 참가한 시범리그를 통해 첫 선을 보였다. 2009년에는 22개 대학이 참가해 3개 권역으로 나눠 시범리그를 펼쳤고, 2010년에는 전국 66개 대학 팀이 참가한 가운데 정식으로 리그가 출범했다. 2010년 연세대의 우승으로 막을 내린 U리그는 2011년에는 참가 팀 수도 더 늘어나 69여개 팀이 리그에 나서 작년과는 달리 7개 권역(수도권 중앙-수도권 영동-수도권 서부-중부-영남-호남-남부 리그)으로 나누어 매주 금요일에 경기가 열리고 있다.

경과

〈2008.05.01〉

- 대한축구협회 주최, 문화관광부 후원 10개 대학 시범리그 개최

〈2009〉

- 3권역 22개 대학 홈앤드어웨이 리그

〈2010〉

- 6권역 66개 대학 홈앤드어웨이 리그

〈2011〉

- 7권역 69개 대학 홈앤드어웨이 리그

진행방식

7개 권역별 홈앤드어웨이 FULL-리그(2011.04~2011.09)

- 대학선수권 챔피언십 [1위~32위] (2011.10.27~2011.11.11)
- 대학선수권 프랜차이즈 [33위~69위] (2011.10.24~2011.11.07)

개선사항 (학습권보장)

〈2011〉

- 춘계연맹전 및 춘계 1,2학년 대회 4월 ⇒ 2월(겨울방학) 변경
- 추계연맹전 및 추계 1,2학년 대회 9월 ⇒ 7/8월(여름방학) 변경
- 전국대학축구선수권대회(10~11월 개최) 폐지
- 춘계 1,2학년 대회(2월) 폐지 ⇒ 전국대회 5개 ⇒ 4개로 축소
- 대학축구 U리그 : 정규리그 경기 매주 금요일 오후 3시 고정



2011 KB국민은행 대학농구리그

“공부하는 운동부”, “학업과 함께”



3월 25일 잠실실내체육관에서 작년 우승팀 중앙대와 준우승팀 경희대의 경기로 화려하게 막을 올린 2011 KB국민은행 대학농구리그는 경희대가 11승 전승으로 우승을 차지하며 1차 리그가 끝났다.

2위는 10승 1패의 연세대, 3위는 9승 2패의 중앙대로 3강을 형성하고 있다. 개인기록에선 성균관대 득점머신 임종일이 11경기서 279점을 올려 게임평균 25득점이 넘는 기염을 토하고 있고 3점슛에선 최하위 상명대(11패) 박성은이 게임평균 4.3개를 터트리며 1위에 올라 있다. 리바운드에선 고려대 신입생 이승현이 청소년대표 출신답게 골밑을 장악하며 게임평균 15.4개의 턴 공을 잡아냈고 어시스트에선 명지대 김시래가 게임평균 7.6개를 기록하며 각각 선두에 랭크되어 있다.

대학농구는 9월 2일부터 2차 리그에 돌입 1, 2차 리그를 합산하여 상위 6팀을 뽑아 플레이오프를 거쳐 챔피언 팀을 가리게 된다. 이에 따라 후반기에 돌입하여 6팀 플레이오프 진출 티켓을 놓고 중위팀 대학 간에 치열한 순위다툼이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2010년 처음 실시된 대학농구 홈앤드어웨이 경기는 이번 시즌 대학스포츠 사상 최초로 (주)B스포츠와 마케팅 계약을 체결하고 KB국민은행을 타이틀 스폰서로 영입하여 마케팅의 가능성을 활짝 열었다. 또한 주요경기를 인터넷 생중계함으로써 팬 확보에 새 장을 열었다.

경과

〈2009.11.4〉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대학농구연맹, 한국대학교육협의회,
: 11개 대학 총장 등 정부 및 대학농구 관계자들이
대학농구 홈앤드어웨이 리그 출범 공식 발표
- 문화체육관광부 시설보수비 1억원 각 대학 지원

〈2010.3.26〉

- 2010 대학농구리그 개막

〈2011.3.25〉

- 2011 KB국민은행 대학농구리그 개막

진행방식

12개팀 홈앤드어웨이 FULL-리그

- 1라운드(1학기, 3월~6월)
- 2라운드(2학기, 9월~11월)
- 리그 종료 후 6강 왕중왕전

개선사항 (학습권보장)

-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단체훈련 금지
- 농구 특기자 선발 시 최저학력제 도입(2016년부터)
- 한국대학농구연맹 주최 연맹전 폐지
: 전국대학농구 1차 연맹전(7월), 전국대학농구 2차 연맹전(11월)
폐지 ⇒ 홈앤드어웨이 리그의 전제조건
- 1일 1경기 ⇒ 1일 2경기 리그 운영 ⇒ 정규리그 기간 단축



2011 삼성화재배 대학배구

“공부하는 운동부”, “학업과 함께”



올해 처음 홈앤드어웨이로 경기를 펼치게 된 2011 삼성화재배 대학배구는 6월 3일 경기-인하대의 경기를 끝으로 1차 리그를 마쳤다.

대학배구 1부 리그 8개팀이 모두 출전한 대학배구는 4개팀이 5승 2패를 기록하는 등 전례 없는 전력 평준화를 이루며 열띤 경기를 펼쳤다.

득점, 실점으로 순위를 가린 결과 성균관대가 1위, 인하대가 2위, 경기대가 3위, 홍익대가 4위를 차지했다. 전통의 강호 한양대는 4승 3패로 5위에 그쳤고 자체 체육관에서 경기를 치를 수 있는 여건이 되지 못해 수원 LIG체육관, 용인 현대체육관, 수지 삼성체육관 등 프롭팀 체육관을 전전하며 홈경기를 치른 경희대는 3승4패로 6위에 머물렀다. 명지대는 1승6패, 유일한 지방 팀인 조선대는 7전 전패로 꼴찌.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 2경기씩 치르고 있는 대학배구는 6월20일부터 충북 단양에서 4강이 참가하여 전반기 우승팀을 가릴 예정이다. 이어 8월 25일부터 추계리그를 각 팀 7경기씩 치르는 풀리그로 벌이고 11월 같은 방법으로 우승팀을 가릴 계획이다.



경과	<2010.12.02> <ul style="list-style-type: none">한국대학배구연맹 홈앤드어웨이, 8개 대학 체육위원장 및 감독 결의
	<2010.12.03> <ul style="list-style-type: none">문화체육관광부 시설보수비 1억원 각 대학 지원
	<2011.02.24> <ul style="list-style-type: none">시범경기 실시
진행방식	<2011.03.24> <ul style="list-style-type: none">2011 삼성화재배 대학배구리그 개막
	8개팀 홈앤드어웨이 FULL-리그 <ul style="list-style-type: none">춘계리그(1학기, 3월~6월 초)추계리그(2학기, 8월~11월 초)춘·추계리그 종료 후 최강전(춘·추계리그 최강팀 각각 선정)
	개선사항(학습권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한국대학배구연맹 주최 전국대회 폐지 : 전국대학배구 춘계대회(4월), 전국대학배구 추계대회(9월) 폐지 ⇒ 홈앤드어웨이 리그의 전제조건1일 1경기 ⇒ 1일 2경기 리그 운영 ⇒ 정규리그 기간 단축





한국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 창립총회



2009년 11월 4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농구부를 운영하는 11개 대학 총장들이 간담회를 갖고 대학스포츠협의체의 필요성을 인식하였다. 2010년 3월 6일과 3월 25일에는 준비위원으로 지명된 5개 대학의 체육위원(부·실)장들이 한국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 창립 발기 준비 소위원회를 개최하였다.

2010년 4월 20일에는 한국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 창립 발기 준비회의를 개최하여 총장 중심의 대학스포츠협의회의 구성을 준비하였다. 5월 6일에는 17개 대학 총장과 관계자가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한국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 창립 발기회를 갖고, 협의회 창립 준비과정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였으며, 이어서 5월 18일과 5월 25일에 두 차례의 한국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 창립총회 준비회의를 개최하였다.

마침내 한국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는 6월 8일 오후 2시 서울 코리아나 호텔 7층 스테이트 홀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공식적인 시작을 선언하게 되었다. 이 창립총회에는 진동섭 청와대 교육과학문화수석비서관, 김대기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박용성 대한체육회 회장, 각 대학연맹 회장 등을 비롯하여, 전국 28개 대학교 총장 및 부총장, 체육위원회(부·실) 관계자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사회는 조광민 연세대 체육위원장이 맡았으며, 협의회 초대 회장에는 김한중 연세대학교 총장이 추대되었다. 초대 회장인 김한중 총장은 대학스포츠 선진화를 이끌 수 있는 협의체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면서 많은 대학교 관계자들의 협조를 요청했다.





13 협의회
주요 활동

한국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 상견례 및 현안 보고회



2010년 10월 27일 연세대 총장 공관 영빈관에서 한국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 상견례 및 현안 보고회가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박선규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을 비롯 문화체육관광부 직원들과 KBS 이정봉 보도본부장, 박영문 스포츠국장 등 언론계 인사, 그리고 김한중 협의회 회장(연세대 총장) 등 이사진, 집행위원, 사무국 직원들이 모두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연세대 음악대학 현악 3중주단의 연주 속에 회장 인사, 장관 축사, 내빈 및 임원 소개, 협의회 현황과 현안보고 순으로 진행된 후 담소를 나누며 만찬을 함께 하였다.



참석자 명단

박선규 제2차관, 박위진 체육정책과장, 김지희 사무관(이상 문화체육관광부)
이정봉 보도본부장, 박영문 스포츠국장, 배재성 스포츠취재부장, 이정화 기자(이상 KBS)
김한중 연세대 총장, 김종량 한양대 총장, 박범훈 중앙대 총장, 유병진 명지대 총장,
박희중 관동대 총장, 최호준 경기대 총장, 이현청 상명대 총장(이상 임원)
하미승 건국대 부총장, 오택열 경희대 부총장, 한진수 동국대 경영부총장,
백상기 충남대 대학원장(이상 대리참석)
김종욱 한체대 총장, 김재홍 서라벌대 총장(이상 감사), 이상조 연세대 대외부총장
조광민 연세대 교수(집행위원장) 박종성 명지대 교수, 박용범 중앙대 교수, 조영호
한양대 교수, 모창배 대학농구연맹 회장, 변석화 대학축구연맹 회장(이상 집행위원)
엄현희 사무국장, 이태성, 윤정원, 이성원(이상 사무국 직원)





대학스포츠 재정 확충을 위한 세미나

seminar

대학스포츠의 안정적인 운영 자원 확보와 대학스포츠 진흥과 발전의 계기 마련을 위한 대학스포츠 재정 확충을 위한 세미나가 2010년 11월 22일 연세대학교 장기원 국제회의실에서 스포츠 마케팅을 전공하는 대학생들과 문화체육관광부, 대학경기연맹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세미나에서 한양대 스포츠 산업학과 김종 교수는 미국 NCAA가 2003년부터 10여 년 동안 TV 중계방송과 마케팅 관리 판매로 60억 달러의 수익을 올린 사례를 소개하며 “국내 대학스포츠도 적극적인 스포츠 마케팅 기법을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한국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가 주축이 되어 적극적인 비즈니스 마인드를 도입하여 통합 마케팅을 추진할 것”을 강조했다.

서울과학기술대 스포츠과학과 박세혁 교수는 중·고 스포츠의 발달과 세금면제 혜택을 미국 대학스포츠의 성공요인으로 꼽으며 한국 대학스포츠도 ▲대학스포츠라는 상품 개발 ▲스폰서 형태로 기업의 재정지원 ▲재학생, 동문, 지역사회의 관심촉진을 통한 마케팅 수입 등을 재정 확충 방안으로 제시했다.

법무법인 에이펙스 장달영 변호사는 한국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가 전체 대학스포츠에 대한 마케팅 권리자(Right Holder)로서의 지위를 확보한 뒤 대학 스타선수들을 활용한 마케팅을 추구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장 변호사는 특히 대학스포츠도 체육진흥투표권 발행대상 경기로 지정받아야 하고 대학생들도 스포츠포트를 구매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대학 경기 지도자 워크숍

대학스포츠 선진 시스템의 활성화를 위한 대학 경기 지도자 워크숍이 2010년 12월 1일 서울 리베라 호텔에서 전국 67개 대학 체육위원장과 주요종목 경기지도자, 운동부 행정 실무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워크숍에서 문화체육관광부 박위진 체육정책과장은 대학스포츠의 선진화를 위하여 ▲수업시간 보장을 위한 대학리그제 도입 ▲수업 결손 보강을 위한 학업지원 정책 ▲최저 학력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 대학스포츠 재정지립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박 과장은 지덕체를 고루 갖춘 전문 스포츠인의 양성과 학원 스포츠 정상화를 정책추진의 중심과제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KBS(한국방송공사) 스포츠부 정재용 기자는 한국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가 학교 스포츠 개혁의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한다고 강조하고 “대학스포츠는 사회 공익적 스포츠 콘텐츠라는 자기 정체성을 분명하게 밝혀 미디어와 국가적 지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기자는 “공부와 운동을 병행함으로써 운동선수가 일반사회에서 격리되는 현상을 방지하고 대다수 학생들이 스포츠에 참여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지적했다.

중앙대 체육교육과 권형일 교수는 NCAA의 사례 중 ▲고등학교 성적을 대학입학 기준으로 사용 ▲대회 출전기준으로 학생선수 성적 사용 ▲팀내 폭행, 가혹행위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학생 선수들의 학업 성취도에 대한 포괄적인 정보수집과 관리 등을 우리나라 대학스포츠에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학경기리그 유관기관 워크숍 개최



한국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는 2010년 12월 27일 롯데호텔에서 대학경기리그 유관기관 워크숍을 개최했다. 협의회 집행위원,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 및 축구, 농구, 배구연맹 관계자들이 참석한 이날 워크숍에서는 ▲대학스포츠 리그제 전환과 학생운동선수의 학습권(위성식 고려대 교수) ▲현 대학 운동부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본 대학스포츠 선진화 방안(박종성 명지대 교수) ▲프로축구 선수 드래프트(대학축구연맹) 등의 주제발표와 조광민 집행위원장(연세대 교수)의 사회로 자유토론이 벌어졌다.

대학농구리그 주관 방송 약정서 체결



한국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와 KBS는 5월 4일 대학농구리그 주관 방송 약정서를 체결했다. 약정기간은 2011년 3월 25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3년이다. 대학농구리그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상호 권리, 의무 관계 및 상호 협력사항을 명확히 정한 약정서엔 대학농구 리그의 모든 매체에 대한 공중 송신권과 저작권은 KBS에 있으며 KBS는 경기 중계를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며 취재보도, 프로그램을 통하여 대학농구 홍보에 적극 협조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한국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는 중계방송 횟수 보장 조건으로 중계제작 지원금을 지원하도록 돼 있다.





대학농구리그 마케팅 사업 대행 계약



한국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와 한국대학농구연맹은 2011년 3월 24일 스포츠 마케팅 전문회사 (주) IB스포츠와 '대학농구리그'에 대한 마케팅 대행 권리 독점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계약은 한국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와 한국대학농구연맹의 대학농구리그 마케팅권리를 IB스포츠가 독점 대행한다는 내용이다. 계약기간은 2011년 3월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이다. 마케팅대행 사항으로는 스폰서십 판매, 협찬사 유치, A보드 및 경기장 광고 판매, 미디어 방송 중계권 판매, 라이선싱 및 머천다이즈 사업, 입장권 판매, 각종 마케팅 사업 등이다. 이에 따라 2011대학농구리그는 KB국민은행이 타이틀 스폰서로 참여하여 대회명칭은 'KB국민은행 대학농구리그 2011'로 명명되었으며 매년 2억5천만 원의 협찬비를 받아 리그운영에 큰 도움을 받게 되었다.

협의회 재정자립 전략개발 연구용역 공모

한국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는 한국 대학스포츠 산업의 자립적인 재정구조와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여 한국 대학스포츠의 정상화와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한국 대학스포츠 산업의 재정 수입원 모델 개발 연구 과제를 공모하고 있다.

연구주제는 현재 리그제로 운영되고 있는 대학축구, 대학농구, 대학배구를 통한 수익 창출 모델의 개발이 포함되어야 하며, 대학스포츠를 통한 수익 창출 후 각 대학, 대학경기연맹, 한국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 간의 수익분배구조에 대한 연구가 포함되어야 한다. 사업기간은 2011년 6월~12월(6개월)로 3천5백만 원의 연구비가 지급될 예정이다. 한국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 연구용역 세부시행기준의 연구용역 신청자격 및 신청요건 기준상 결격사유가 없는 교육단체 및 연구소, 학술연구단체, 법인 중 연구계획서를 받아 6월 중으로 용역업체를 선정할 계획이다.

2010년도 협의회 회계감사

한국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는 재무상태, 경영성과, 이익잉여금, 자본의 변동 및 현금 흐름에 대하여 회계의 투명성과 적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2011년 1월 11일부터 4일 동안 제331호 공인회계사 감사반의 감사를 받았다. 회계감사결과 "적정하다"는 판정을 받았다.

대학경기리그 참여 학생선수 성적표 진단·분석

한국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는 대학리그 경기 참여 전학생들을 대상으로 성적표를 진단, 분석하여 학생선수 최저학력 기초자료를 도출할 예정이다. 이는 학생선수의 공부 및 운동 병행으로 전인적 스포츠 지도자 육성의 환경을 구축하기 위함이다. 한국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는 2011년 1월 24일 이사회에서 성적표 제출 시행 계획을 의결하였고 4월28일까지 전국 56개 대학에서 성적표를 제출받았다.

이를 국민대 스포츠마케팅 연구실(책임교수 신승호)에 의뢰하여 분석작업을 진행 중에 있다. 대상학교 및 학생수는 축구의 경우 54개 대학 1,186명, 농구 12개 대학 125명, 배구 8개 대학 100명이다.

KUSF FI 상표등록



한국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 명칭의 독점적 사용권한을 확보하기 위하여 KUSF(Korea University Sport Federation) 상표를 2011년 4월 11일 명신평하법률사무소를 통하여 상표등록을 출원하였다.

1년의 등록기간을 거쳐 앞으로 10년 동안 상표권을 보장받게 될 KUSF의 상표 출원번호는 41-2001-0009955이다.

NCAA 순환근무자 초청 강연

한국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는 2011년 1월 20일 협의회 사무국에서 미국 NCAA에서 인턴 프로그램에 참여한 고려대 이윤영 박사를 초청하여 'My experience in NCAA'란 주제로 강연을 들었다. 이날 행사엔 협의회 사무국 직원과 각 대학연맹 직원들이 참석했다.



대학리그 지원

그간 대학스포츠 경기는 주로 지방에서 장기간 합숙하면서 토너먼트 방식으로 운영됨에 따라 학생선수의 수업결손이 잦아 학습권 침해 현상이 심했다. 또한 토너먼트 방식은 경기 승패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구조여서 여러 선수보다는 기량이 뛰어난 선수 위주로 출전의 기회가 주어지다 보니, 팀의 경기력 향상은 물론 학생선수 개개인의 체력관리 측면에서도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이러한 폐해는 학생선수의 학습권 침해와 팀의 경기력 향상의 걸림돌로 작용하였다.

이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2010년, 대학스포츠 정상화의 기본 축인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대학축구, 대학농구 및 대학배구 리그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운영비 지원을 시작하였다. 정부의 지원 아래 대학경기 리그가 홈앤드어웨이 방식의 캠퍼스 내 리그로 실시되어, 공부와 운동을 병행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다. 또한 팀 내 학생

선수가 고르게 출전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학생선수 개인의 경기능력 향상과 체력관리 및 유지에서도 큰 성과를 거두게 되었다.

지난 기간, 대부분 대학운동부의 학생선수는 경기 연습과 대회를 캠퍼스 내에서 진행하지 못하고 대학 구성원들과 괴리된 상태에서 진행하다 보니, 대학 구성원들로부터 모교 운동부와 학생선수에 대한 관심과 열정을 찾아보기 어려웠다. 그러나 캠퍼스 내에서 대학경기 리그를 실시함에 따라 재학생, 동문 등 대학 구성원들은 물론이고 지역 주민까지 경기를 관람할 수 있게 되어 자연스럽게 대학스포츠에 관심을 갖고 응원을 하게 되는 등 새로운 대학스포츠 문화를 조성하게 되었다.

한국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에서는 앞으로도 대학경기 리그의 발전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대학축구리그

학생선수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대학경기의 발전과 대학스포츠 선진화를 도모하기 위해 2009년부터 학기중 대회를 홈앤드어웨이 방식의 리그제로 전환하여 시행해오고 있다.

2010년 대학축구 리그제의 효율적인 환경구축을 위하여 체육진흥투표권 공익사업 적립금중 13억 8천만원을 전국 46개 대학에 지원하였고, 2011년에는 전국 7개권역 69개대학에 13억원을 대학축구리그 운영비로 지원하고 있다.

대학배구리그

2010년 경기대, 명지대, 성균관대, 인하대, 조선대, 한양대 등 6개 대학에 경기장 보수를 위한 지원금으로 대학별 1억 원씩 모두 6억 원이 지원되었다.

2011년부터 홍익대와 경희대가 추가로 참여하여 모두 8개 대학이 홈앤드어웨이 방식의 리그제를 출범시켰으며 이를 위해 3억2천만 원의 운영비가 지원된 바 있다.

리그제의 출범으로 학습권 보장, 경기력 향상, 홈경기 응원문화 조성 등의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대학농구리그

2010년부터 대학농구연맹 산하 1부리그 12개 대학이 기존의 연맹전 등 학기중 대회를 폐지하고 홈앤드어웨이 방식의 대학리그를 출범시켰다. 사업초기 연도인 2010년엔 각 대학 플로어, 전광판, 골대 등 시설보완을 위해 대학별 1억원씩 11억원을 지원하여 기본시설을 갖추었고 2011년엔 대회 운영비로 3억2천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대학농구는 특히 스포츠 마케팅 전문회사인 (주)IB 스포츠와 마케팅 사업대행 계약을 체결하여 KB국민은행을 타이틀 스폰서로 영입하고 KBS를 주관방송사로 선정하는 등 대학스포츠 선진화의 모범사례로 운영되고 있다.

한국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는 자체 예산으로 대학리그 홍보를 위하여 ▲대학축구리그 7개 권역별 각 500부 ▲대학농구리그 1라운드 500부 ▲대학배구리그 춘계리그 500부 등 공식 포스터 4,500부를 제작, 배포하였다.



집행위원회 주요 활동

한국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 집행위원회는 한국 대학스포츠의 정상화와 활성화를 위한 전략계획을 마련하고 협의회 주요과제를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집행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8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위원장은 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연세대학교의 체육위원장이 당연직으로 그 임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위원으로는 경희대, 고려대, 명지대, 중앙대, 한양대의 체육위원(부)장이 대학스포츠 현장에서의 학생선수 지도의 생생한 경험을 토대로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대학리그 주요종목인 축구, 농구 및 배구의 대학경기연맹 회장과 방송사의 대학스포츠 담당 기자도 적극 활동하고 있다.

집행위원회는 지난해 4차례에 걸쳐 개최되었고, 올해에는 6월말 현재 3차례 개최되었다. 앞으로 가능한 한 1개월 1회 이상 개최하여 대학스포츠의 지속적인 발전을 이끌어 나갈 예정이다.



집행위원회 주요 실적

- 대학농구리그 마케팅 사업 대행 계약을 (주)B스포츠와 체결하는 안을 심의·의결하여, 올해부터 매년 2억 5천만 원씩 4년간 10억 원의 선지급 개런티와 추가 수익의 일부를 리그 참여 대학에 지원하여 대학농구리그의 활성화를 도모하였다. 특히, 이번 마케팅 사업 대행 계약은 그 규모와 재정 면에서 대학스포츠 사상 최초의 일로 기록될 것이다.
- 한국 대학스포츠 산업의 재정 수입원 모델 개발 연구 용역 공모안을 심의·의결하여 열악한 대학스포츠 재정 자립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였다.
- 한국방송공사(KBS)와 대학농구리그 주관방송 약정 체결안을 심의·의결하였다. 공영방송과 대학스포츠간의 주관방송 약정은 처음 있는 일이다. KBS는 연 5회 이상, KBS SPORTS N은 연 15회 이상 대학농구 생중계를 약정하였으며, 대학스포츠의 대중적 관심을 이끌어내 대학스포츠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 대학경기리그의 주최자는 한국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로, 대학경기리그의 주관자는 각 대학경기연맹으로 하는 합의서 안을 심의·의결하여 대학경기리그의 성공적 운영을 도모하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 대학경기리그 참여 학생선수 성적 진단 분석을 위한 용역 안을 심의·의결하여 학생선수가 공부와 운동을 병행하여 전인적 스포츠 지도자로 거듭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였다.
- 한국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 상징물(FI: Federation Identity)의 시안과 최종안을 심의·의결하여 협의회 이미지 제고에 앞장섰다.
- 대학축구, 농구, 배구의 경기 지도자 워크숍 안을 심의·의결하여 대학경기 현장의 감독과 코치 250여 명이 그간에 학생선수들을 단지 운동선수로만 여기고 지도하던 방식에서 탈피하여 학생선수는 곧 미래의 전인적 스포츠 지도자로 거듭날 수 있다는 신념을 갖고 지도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러한 대규모 대학 경기 지도자 워크숍의 개최는 처음이며, 이번 워크숍을 모델로 하여 앞으로 더욱 발전시켜나갈 계획이다.
- 대학스포츠 재정 확충을 위한 세미나 안을 심의·의결하여 대학스포츠 재정확충을 위한 추진 방향을 모색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2011년 하반기 주요 계획

대학운동부 운영 종합 실태 조사

우리나라 대학운동부의 전반적인 실태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파악하여 실효성 있는 대학스포츠 정책을 수립하고 대학스포츠의 진흥과 발전을 도모하고자 대학운동부 운영 종합 실태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2011년 7월 중에 전국 대학운동부를 대상으로, ▲대학운동부 운영 실태, ▲대학스포츠 시설 현황, ▲학업 관련 정보, ▲학생선수 복지 관련 현황 등의 내용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대학경기리그 운영

대학축구, 대학농구, 대학배구 리그제의 정상적인 조기 정착을 도모하고, 궁극적으로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과 경기력 향상을 극대화하고자 2011년 3월에 대학경기리그 운영비를 지원하여 관리하고 있다. 현재 대학축구 69개, 대학농구 12개, 대학배구 8개 대학이 리그제에 참가하고 있으며, 대학축구리그에 13억, 대학농구리그와 대학배구리그에 각 3억2천만 원의 리그 운영비를 지원하였다. 수준 높은 홈앤드어웨이 리그 운영을 적극 추구함과 동시에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경기력 향상, ▲대학스포츠에 대한 관심과 참여 증대 등의 효과를 거두고자 한다.

학생선수 맞춤형 교육과정 개발

체육특기자로 입학한 학생선수에게 적합한 교육과정 개발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2011년 8월, 선행학습이 충분치 못한 학생선수를 위한 학생선수 맞춤형 교육과정 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다. 학생선수 학업성취도 사전 평가, 대학별 학생선수 맞춤형 교육과정 현황 분석, 협의회 집행위원회의 교육과정 기본지침 작성, 연구 용역 시행 등을 통해 ▲수준별 맞춤 학습과 평가 제공 등 학생선수들의 최소한의 학습권 보장, ▲체·덕·지를 겸비한 우수한 선수·경기 지도자의 배양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대학스포츠 홍보 사업

대학스포츠의 주체인 학생선수들이 연마하고 있는 스포츠맨십과 아마추어리즘을 체계적으로 홍보하여 대학스포츠의 관심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대학스포츠 홍보 사업을 2011년 6월부터 지속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홍보 사업 주요내용은 ▲대학스포츠 공식홍보물 공모전 실시 및 제작 배부, ▲한국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 홍보 브로슈어 제작 등이다. 홍보 사업으로 대학스포츠 발전 토대를 마련하고 한국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 인지도 상승효과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대학 경기 지도자 워크숍 개최

대학운동부 현장의 핵심 책임자인 대학 경기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2011년 11월, 일본 경기 지도자 초청 워크숍, 2011년 12월, 국내 경기 지도자 워크숍을 개최할 예정이다. 일본 경기 지도자 초청 워크숍은 일본과 한국의 주요 대학 경기지도자들을 초청하여 양국 지도자들이 자국 대학 운동부 전반에 대해 토론하는 형식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국내 경기 지도자 워크숍은 2010년 12월 1일 개최되었던 제1회 워크숍과 마찬가지로 전국 대학 경기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초청연사의 주제발표, 토의로 진행할 계획이다. 학생선수를 지도·관리하는 경기 지도자들에게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보수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자긍심 고취와 총체적인 인식 변화를 통한 우리나라 대학운동부의 폐쇄적인 환경 개선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대학 경기 리그제 선진화 심포지엄

대학 경기 리그제는 시행 초기 단계에 있으며, 우리나라 대학스포츠 환경에 적합한 대학 경기 리그제 선진화 모형 개발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 첫 단계로 대학 경기 리그 직·간접 참여자들의 실질적인 의견과 개선안 도출을 위한 대학 경기 리그제 선진화 심포지엄을 2011년 10월에 개최하고자 한다. 심포지엄에서 ▲현행 대학축구, 대학농구, 대학배구 리그제 개선방안, ▲대학 경기 리그제 성공모델을 통한 대학스포츠 발전 방안 등의 논의를 통해 전 종목에 적용가능한 한국형 대학 경기 리그제 설계를 위한 기본 자료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한국 대학스포츠 국제학술대회

선진형 대학스포츠 모델을 갖고 있는 미국과 일본의 스포츠 전문가를 초청, 한국 대학스포츠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여 앞으로 한국 대학스포츠가 나아갈 방향과 실천과제 등을 수립하고자 한다. 미국 NCAA의 전문가와 일본 운동부 보유 주요 대학의 전문가를 초청할 계획이며, 2011년 10월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물은 운동부 보유 대학에 배포할 예정이다.

대학스포츠 온라인 서비스 확충

대학스포츠의 주요 고객층인 대학생들이 희망하는 수준 높은 대학스포츠의 통합 정보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관심 유발과 참여 촉진을 도모하고자 대학스포츠 온라인 서비스 확충을 계획 중이다. 2011년 9월부터 본격적으로 ▲공식홈페이지 유지·관리, ▲인터넷·모바일 중계 시스템 구축, ▲웹진 발간 등의 구체적인 실천을 통해 대학스포츠의 직·간접 참여자를 확대함과 동시에 온라인 마케팅 기반 조성에 기여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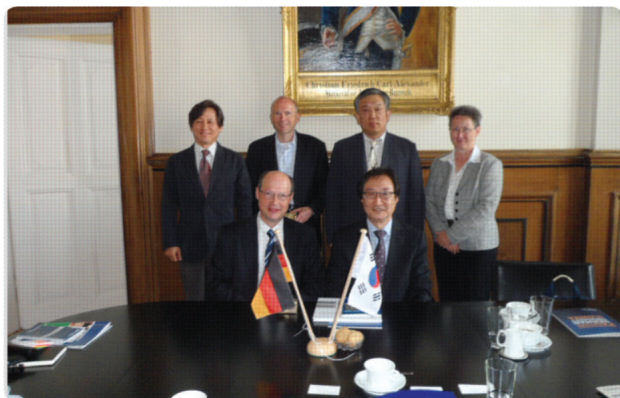
협의회 회원대학 총장 동정

해외대학과 교류 협정 활발



김한중(연세대 총장)은 4월 30일부터 5월 6일까지 호주 캔버라, 멜버른, 시드니 등의 대학 등을 방문하였다. 이번 방문을 통해 ANU, Monash University, University of New South Wales 등을 방문하고 교류 증진방안 논의 및 교환협정을 체결하였다. 5월 17일에는 연세대 총장실에서 파리 11대학의 마이클 뒤바우 교수와 양 교간 교류 협정을 체결하는 등 연세대와 해외대학과의 활발한 교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편, 김 총장은 5월 14일, 연세대학교 백주년 기념관에서 열린 '창립 126주년 기념식'에 참석하여 "200주년을 맞이할 2085년에 연세 DNA가 살아 숨 쉴 것이기에 연세는 찬란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럽 4개국 9개대와 교류협정



최호준(경기대 총장)은 5월, 유럽 4개국(독일, 벨기에, 프랑스, 이탈리아)의 9개 대학을 방문하고 교류협정을 체결했다. 최 총장은 이번 일정을 통해 ▲독일 University of Bundeswehr 등 5개 대학, ▲벨기에 University Libre de Bruxelles, ▲프랑스 University of Montpellier2 등 2개 대학, ▲이탈리아 Politecnico di Milano와 교류협정을 체결하고 교류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최 총장은 이에 앞서 4월에는 카메룬 Yaounde II 대학, 3월에는 몽골 Huree 대학과 교류협정을 체결한 바 있다.

개교 106주년 기념식서 5대비전 제시



김병철(고려대 총장)은 5월 5일 고려대학교 안암캠퍼스 본관 앞에서 '개교 106주년 기념식 및 고대인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김 총장은 기념사에서 ▲자연계 역량의 강화, ▲인문사회과학 선도대학으로의 자리매김, ▲국제학의 세계적 교육기관으로의 발돋움, ▲첨단의학센터 건립 및 연구중심의 대학병원으로의 도약, ▲실질적 대학분권화와

행정 전문화 이룩이라는 다섯 가지 비전을 밝혔다. 이어 자랑스러운 고대인상, 석탑강의상, 고대가족상 등의 시상도 하였다. 김 총장은 2월 28일 제18대 총장으로 취임했다.

목동야구장서 '관동대의 날' 행사



박희종(관동대 총장)은 5월 4일 오후 6시 30분 서울목동야구장에서 학생, 동문, 교직원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관동대학교의 날」 행사를 개최하였다. 올해 개교 56주년을 맞는 관동대학교의 역사와 전통 속에 축적되어온 관동인 모두의 지혜와 힘 그리고 저력을 한곳에 모으기 위해 행사를 개최하였으며, 박 총장은 넥센-기아 경기에 앞서 시구를 하였다. 한편, 관동대와 넥센 히어로즈는 지난 2월, 산학협력 협약을 맺고 ▲인적자원과 시설을 연계 운영, ▲산학 협동 프로그램을 통한 재학생 인턴십 기회 제공 등을 협약한 바 있다.



협의회 회원대학 총장 동정

삼성전자(주)와 STP 운영 협약식



김기영(광운대 총장)은 3월 9일 광운대학교 화도관 대회의실에서 삼성 전자(주)와 STP 운영 협약식을 가졌다. 광운대는 지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제1기 정보통신트랙을 운영한 바 있다. 김 총장은 올해 4월 1일에는 한국-이스라엘 산업연구개발재단과 MOU를 체결하고, 2월 16일에는 중국 하얼빈공업대학교 Microwave/RF센터와 MOU를 체결하는 등 산학협력을 위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한편, 김 총장은 지난해 광운대와 중앙일보, 동아일보 간 MOU를 체결한 바 있다.

필리핀 사우스빌 국제학교와 학술교류



류재민(동강대 총장)은 2010년 12월 20일, 필리핀 마닐라 라스피나스 시 소재 "사우스빌 국제학교"에서 교육 및 학술교류 협약 조인식을 갖고, 동강대학 간호와 학생들이 졸업 후 사우스빌 국제학교에 4학년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협약 조인식에 참석한 후, 류 총장은 필리핀 마닐라 소재 더존 한얼 국제학교로 어학연수를 떠나는 동강대학 재학생 7명을 인솔하여 어학원 숙소를 방문하는 등 어학원 환경을 둘러보고, 현지 어학원장과 어학연수와 관련하여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올해 1월 19일에는 필리핀어학연수 발대식에 참석하기도 했다.

중국 한패션 전시회 사업단 격려



정량부(동의대 총장)은 3월 31일부터 4월 2일까지 중국 베이징 주중한국문화원을 방문하고 한패션 제품전시회에 참석하여 축사를 하였다. 정 총장은 3월 31일 주중한국문화원 개원 4주년 기념 〈중국에서 꽃피는 한 국문화〉행사에서 문화원 내부공간에 한글문양 카펫을 설치한 한패션사업단을 격려했다. 한패션사업단은 지난해 주중한국문화원과 MOU 체결을 통해 상호협력기반을 구축하였고, 문화와 산업을 연계하는 주역으로서 그 역할을 하고 있다.

총장배 Dream Hub 축구대회 개최



이승우(군장대 총장)는 2010년 11월 27일부터 28일까지 양일간 군산월명종합운동장에서 2010 군장대학 총장배 군산시 Dream Hub 축구대회를 개최하였다. 축구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생활체육군산시축구연합회가 주최하고 군산시와 군장대가 후원한 이번 축구대회에서는 군산시의 청년부 15팀, 장년부 9팀 총 24팀이 참가하여 기량을 마음껏 발휘하였다. 이 총장은 "대회가 해를 거듭할수록 알차고 풍성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승우(군장대 총장)는 2010년 11월 27일부터 28일까지 양일간 군산월명종합운동장에서 2010 군장대학 총장배 군산시 Dream Hub 축구대회를 개최하였다. 축구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생활체육군산시축구연합회가 주최하고 군산시와 군장대가 후원한 이번 축구대회에서는 군산시의 청년부 15팀, 장년부 9팀 총 24팀이 참가하여 기량을 마음껏 발휘하였다. 이 총장은 "대회가 해를 거듭할수록 알차고 풍성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총장배 및 투어스테이지컵 중·고등부 골프대회 개최



유병진(명지대 총장)은 3월 21일부터 24일까지 제14회 '명지대학교 총장배 및 투어스테이지컵 중·고등학교 골프대회'를 개최하였다. 명지대학교가 주최하고 일간스포츠와 하나은행이 후원한 이 대회는 충북 충주 임페리얼 레이크골프장에서 열렸으며, 500여명의 중·고등학생 아마추어 선수들이 참여하였다. 이 대회 고등부 입상자(남·여 각 30위 이내)에게는 명지대 체육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체육특기자 지원 자격을 부여하고 입학 후에는 경기 실적에 따라 각종 장학금을 지급한다. 한편 유 총장은 1월 27일부터 2월 6일까지 터키 예루살렘에서 열린 동계 유니버시아드에 참석하였다.

유병진(명지대 총장)은 3월 21일부터 24일까지 제14회 '명지대학교 총장배 및 투어스테이지컵 중·고등학교 골프대회'를 개최하였다. 명지대학교가 주최하고 일간스포츠와 하나은행이 후원한 이 대회는 충북 충주 임페리얼 레이크골프장에서 열렸으며, 500여명의 중·고등학생 아마추어 선수들이 참여하였다. 이 대회 고등부 입상자(남·여 각 30위 이내)에게는 명지대 체육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체육특기자 지원 자격을 부여하고 입학 후에는 경기 실적에 따라 각종 장학금을 지급한다. 한편 유 총장은 1월 27일부터 2월 6일까지 터키 예루살렘에서 열린 동계 유니버시아드에 참석하였다.



아펜젤러 기념관서 6대 총장 취임



김영호(배재대 총장)는 3월 8일 배재대학교 아펜젤러기념관에서 제6대 총장으로 취임하였다. 엄홍철 대전시장의 축사하고 1,000여명의 내외빈이 참석한 가운데, 김 총장은 취임사에서 “학생을 먼저 생각하는 대학”으로서 학생을 주인으로 섬기는 교육과 행정을 펼쳐 그동안 거둔 외적 성장을 바탕으로 내실을 다지는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더

불어 “취임 첫해를 ‘스마트 행정’의 원년으로 삼아 교수는 연구와 지도를, 직원은 투명한 행정과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경영혁신을 가져오겠다”고 강조했다.

한국대학총장협회 8대 회장에 선출



이현청(상명대 총장)은 2010년 11월 30일 프레스센터 19층 국회실에서 개최된 사단법인 한국대학총장협회 이사회에서 제8대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한국대학총장협회는 400여 명의 전·현직 총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난 15년 동안 대학 정책 논의, 전·현직 총장간의 가교역할 뿐만 아니라 고등교육 경쟁력 제고와 사회적 이슈를 해결

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 오고 있다. 이 총장은 국제 교육전문가로서 그동안의 공을 인정받아 2011년 5월, 세계 3대 인명사전인 미국 마르퀴즈 후즈 후 Who's Who in the World 2012년판에 등재된 바 있다.

서라벌대학 승마단 창단



김재홍(서라벌대 총장)은 2010년 11월 17일, ‘서라벌대학 승마단’을 창단하고 서라벌대학 본관 2층 영상 세미나실에서 창단식을 개최하였다. 김 총장은 “서라벌대학 승마단은 2009년 개설된 마사과를 주축으로 말과 승마를 연계해 말 산업 육성을 목적으로 창단하게 되었으며 대학 승마단 위상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전했다. 한편, 서라벌대학은 4월에 실시한 농림수산식품부가 시행하는 마필육성 사업 대학으로 최종 선정되었다.

신입생 학부모 캠퍼스 초청행사



안재환(아주대 총장)은 3월 10일 아주대학교 대강당에서 제14대 총장으로 취임하였다. 안 총장은 취임사에서 “아주대는 대학에도 개혁과 효율을 요구하는 우리 사회의 시대정신에 부합하는 내실 있고 지속가능한 변화를 추구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인간존중, 실사구시, 세계일가라는 아주대의 이념을 구현하는 다각적 노력을 해나감으로 융합학문을 이끌 전문그룹과 경쟁력 있는 연구그룹별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안 총장은 4월 16일 2011학년도 신입생 학부모 모두를 캠퍼스에 초청하는 ‘2011학년도 신입생 캠퍼스 초청 행사’를 개최하고, 4월 19일에는 학생들을 위한 종장땀 행사를 개최하기도 했다.

유학생 체육대회 개최

강철규(우석대 총장)는 4월 1일 우석대학교 제11대 총장으로 부임하여 5월 12일 우석대학교 문화관 아트홀에서 취임식을 가졌다. 강 총장은 취임사를 통하여 “자신의 존재인식과 함께 개인의 개성과 다재다능한 재능을 계발하고 더불어 이웃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깨닫고 실천함으로써 인간의 존엄성과 다양성이 공존하는 대학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강 총장은 취임 후 4월 22일 U리그 선수단을 격려하고, 5월 13일에는 유학생 체육대회를 개최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협의회 회원대학 총장 동정

중앙대병원 다정관 개원식



안국신(중앙대 총장)은 3월 16일 중앙대 서울캠퍼스 대학원 5층 회의실에서 제13대 총장 취임식을 가졌다. 박용성 이사장, 박용현 두산그룹 회장을 포함한 내외빈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안 총장은 취임사를 통해 ▲계열별 책임 부총장제 조기정착, ▲학사업무의 지속적 개혁, ▲신 캠퍼스 추진의 불확실성 제거, ▲연구·교육 두 가지 분야에서 글로벌 리딩 대학으로 선도 등의 4가지 중점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특히 4가지 중점 추진과제의 핵심 키워드로 혁신과 소통을 표방하며 '열린 소통'의 실천을 강조하였다. "무과아심이라는 경구를 가슴에 품고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총장직을 수행할 것"이라고 취임 소감을 밝혔다. 안 총장은 취임 후 3월 31일, 중앙대학교 병원 다정관 개원식에 참여하고, 4월 20일, 중앙일보와 신임 총장 인터뷰를 진행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소강체육대상 공로상 수상



김정행(웅인대 총장)은 2월 16일 서울 플라자호텔 다이아몬드홀에서 소강체육대상 공로상을 받았다. 김 총장은 17년째 대한유도회장을 맡고 있으며, 2010년 광저우 아시안게임에서 한국유도가 6개의 금메달을 따는데 큰 공을 세웠다. 김 총장은 지난해 9월 일본에서 개최된 세계유도선수권대회에 참석하여 선수단을 격려한 바 있으며, 올해 4월 3일,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에서 열린 아시아유도연맹(AJF) 총회에 참석하였으며, 국제유도연맹(IJF) 집행위원에 선출되었다.

무료급식 봉사 활동

김윤배(청주대 총장)는 4월 17일 김해시 서상동 소재 수로왕릉 내 송선전과 송안전에서 거행된 춘향대제 아한관으로 참석하였다. 송선전 제례는 경상남도 무형문화재 제11호로 매년 춘, 추향제례를 받들고 있다. 한편, 청주대는 지난 2001년부터 매년 봄·가을 두 차례 무료급식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김 총장은 지난해 10월 31일에는 청주대학교 교직원 및 총학생회 60여명 등과 함께 청주 중앙공원에서 무료급식 봉사활동을 하기도 했다.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 교육위원장 위촉



송용호(충남대 총장)는 1월 5일, 제3기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의 교육분야 위원장으로 위촉되었다. 이번 자문회의는 정부가 추진 중인 입학사정관제와 연구개발 투자 확대 등 교육과학기술정책의 성과를 높이고 실현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는 대통령 직속이며, 송 총장의 교육분야 위원장 임기는 1년이다. 송 총장은 2010년부터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부회장, 대전 충남지역 총장협의회 공동의장 등을 역임하고 있다.

백남음악관서 제13대 총장 취임



임덕호(한양대 총장)는 3월 18일 한양대 서울캠퍼스 백남음악관에서 제13대 총장 취임식을 가졌다. 임 총장은 "한양의 72년 역사를 지탱하고 이끌어 온 정신은 '사랑의 실천' 정신"임을 강조하고 '사랑의 실천' 정신을 바탕으로 ▲New Hanyang 2020의 전략과 과제 실천, ▲경영 효율화, ▲재정 확충, ▲한양 가족과의 소통을 이룰 것이라고 약속했다. 특히 "가장 시급한 과제는 재정 확충"이라며 "경영을 효율화하고 발전기금을 확충시키기 위해 학교 밖으로 더 힘차게 뛰겠다"고 다짐했다. 임 총장은 취임 약 한달 후인 4월 14일 한양대학교와 삼성전(재주) 간의 STP 운영 협약식을 맺는 등 'CEO 총장'으로서 활동을 하고 있다.



25 KUSF FI

한국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 FI (Federation Identity)

Simbol



Signature



FI 소개

한국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의 상징물은 협의회의 영문약칭 핵심어인 'U'(University), 'S'(Sport)가 조합된 형태로 대학의 전인교육을 바탕으로 정신적, 육체적, 사회적인 가치가 잘 조화된 이상적인 젊은 스포츠 리더의 모습과 열정을 상징한다.

젊은 스포츠인들의 스포츠에 대한 열정과 이상으로 긍정적인 앞날을 밝힌다는 상징성을 내재하고 있으며, 훌륭한 스포츠인을 넘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리더로서의 덕목을 두루 함양한 인재를 길러내고자 하는 협의회의 의지를 담고 있다.





한국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
Korea University Sport Federation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동 34-1 신화빌딩 1004호
TEL. 02-707-3767 | FAX. 02-707-3766
www.kusf.or.kr

